



**[유통]**  
롯데주류  
하노이서 '처음처럼'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L1



Life

**[100세 시대 기획]**  
日 로봇헬스케어  
신체일부가 된 로봇  
SF 영화가 현실로  
L2



5일 오후 서울식물원의 온실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 이국 식물 가득한 온실정원, 추운겨울 '핫플레이스'

## 되살아나는 서울

### 마곡산업단지 '서울식물원'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겨울, 덥고 습한 여름이 그립다면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시내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대형 공원이 없는 서남권에 축구장 70개 크기의 보타닉공원을 조성, 지난해 10월 서울식물원의 문을 열었다.

서울식물원은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보타닉 공원(Botanic Garden + Park)이다. 총면적이 50만4000㎡인 서울식물원은 여의도 공원의 2.2배, 어린이대공원과 비슷한 규모로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정식 개원하며, 현재 임시 개방 중이다.

#### ◆추위와 미세먼지 피해 따뜻한 온실로...

서울식물원은 임시 개장 2달 만에 97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서남권 최초의 대형 공원이 서울식물원을 찾았다.

공간은 주제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의 총 4부분으로 구성됐다. 식물원 구간인 주제원부터 둘러봤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확인비행물체(UFO)처럼 생긴 온실 건물이었다. 밥공기를 뒤집어 엮어 놓은 것과 같이 오목한 그릇 형태였다.

온실은 '핫 플레이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건물 밖,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열기가 훅하고 밀려왔다. 나무에 걸린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26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덥고 습해 여름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두꺼운 겉옷을 벗어 팔에 걸어두고



서울식물원 온실을 찾은 어린이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



서울식물원 호수원에서 시민들이 얼음 위를 걷고 있다.

### 축구장 70개 규모 보타닉공원 조성 임시 개장 2달만에 97만명 다녀가

### 주제원·열린숲 등 4부분으로 공간 구성 온실 건물 희귀 식물 많이 볼거리 풍부 5월 정식 개원... 야외 식물 더 심을 것

관람을 시작했다.

앞에 있던 한 꼬마 아이가 "엄마, 행진이에요. 행진"이라고 외치며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가리켰다. 아이의 말처럼 온실 내부는 관람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이날 식물원을 찾은 김현경(28) 씨는 "중국에 단체관광 온 기분"이라며 "국내에서 볼 수 없는 희귀 식물이 많아 볼거리도 많고 좋는데 쾌적한 관람을 위해 관람 인원을 제한했으면 한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덥고, 습하고, 사람들에 떠밀려도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나 있었다. 신기하게 생긴 식물을 보며 "애는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라며 부모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온실 안은 향아리 위에 심어진 것처럼 보이는 '케이바 초타디', 대나무처럼 생긴 '드리모 플로에우스 헨티', 사람 눈이 다다다닥 붙어있는 것 같은 '파이에나 리리'까지 들지도 보지도 못했던 식물들로 넘쳐났다.

분당에서 온 홍지은(31) 씨는 "예능 프로그램 '한끼줍쇼' 강서구 편에 서울식물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와봤다"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홍 씨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식물이 많다.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오길 잘했다"면서 "나라별, 지역별로 전시가 잘 되어 있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다.

식물원 온실은 열대관과 지중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열대관에는 하노이(베트남),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상파울루(브라질), 보고타(콜롬비아) 4개 도시의 식물이 전시됐다. 지중해관은 바르셀로나(스페인), 샌프란시스코(미국), 로마(이탈리아), 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 지역에서 온 식물들로 꾸며졌다.

#### ◆공원은 아직 준비 중

온실에서 나와 식물원의 입구인 열린숲으로 갔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맞닿아 있는 열린숲은 잔디마당과 숲문화원 등으로 구성됐

다. 광장에서 호수로 이어지는 길에는 주목나무가 심어진 핫핑크색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체리로드'로 불리는 길을 따라 호수원으로 갔다.

호수원은 호수를 둘러싸인 산책로인 수변가로와 소규모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물가쉼터, 호수를 가로지르는 보행교인 습지관찰데크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호수원에는 얼음 위를 가로지르며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도 있었다.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해 보였지만 이를 말리는 관리요원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앞으로는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도록 막아놓겠다"고 말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온실과 달리 밖은 썰렁했다. 동네 주민인 박모(60) 씨는 "우리들은 여기에 대형 식물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다"면서 "온실만 좀 볼 만 하고 그 외에는 볼거리가 참 없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서울식물원을 찾은 황모(53) 씨는 "식물원 밖은 공원이라고 하던데 여기에도 뭘 좀 심어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온실 안은 북적이고 온실 밖은 볼 게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썰렁해 보일 수 있지만, 겨울이라 그런 것"이라며 "뿌리가 땅속에 살아 있고 다음 봄을 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날씨가 풀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제원 야외 정원에 자생 식물을 위주로 식물을 더 심을 계획"이라며 "5월에 습지원이 개방되면 식물원 구성이 좀 더 풍부해질 것이다"고 말했다.